

한국사회 미래와 사회적경제

2017. 12. 6.

미래전략연구단 洪元杓

CONTENTS



1. 사회적경제의 출발점
2. 한국사회 미래 전망
3.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직면할 도전
4.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 needs \neq demand

- needs는 생존, 삶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요'
- demand는 시장에서 확인되는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
- ➡ needs가 시장의 demand로 모두 전화하는 것은 아님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자원의 배분 왜곡: 외부경제의 존재, 정보비대칭
- 근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needs를 충족시키는데 실패
- '규모의 경제' 추구의 한계

정부의 실패

-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이 필요
- 그러나 정부 정책을 통한 시장의 보완이나 교정이 한계
-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정부개입의 지속가능성 낮음



한국사회 미래 전망①



4차산업혁명론의 양면성: empowering vs. depowering

- 4차산업혁명이 개인이나 커뮤니티의 역량 증대에 기여(empowering)
 - 4차산업혁명이 개인이나 커뮤니티의 역량 소진을 초래(depovering)
- ➡ 우리의 미래는 양 극단의 중간에 있을 것임

지역의 재인식

- 4차산업혁명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조직된 개인의 힘
- 생활공간을 함께 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중요성 재발견
- 전통적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지역과 프로슈머(prosumer)의 결합

- 생산은 기업, 소비는 가게라는 기능 분화의 파괴
 - 개인(가족), 지역커뮤니티가 생산의 주체로 등장: 제4섹터(비영리조직+공공)
- * 제1섹터(정부), 제2섹터(민간), 제3섹터(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한국 사회 미래전망②



도농 융합의 실마리: 새로운 세대 간 분업?

- 한국의 도시화율은 91.8%(2016년)
- 과거 도시화 과정은 인력, 자원의 도시 집중을 초래
- ➡ 사실상 전국토의 도시화, 전국민의 시민화

한국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그 자식세대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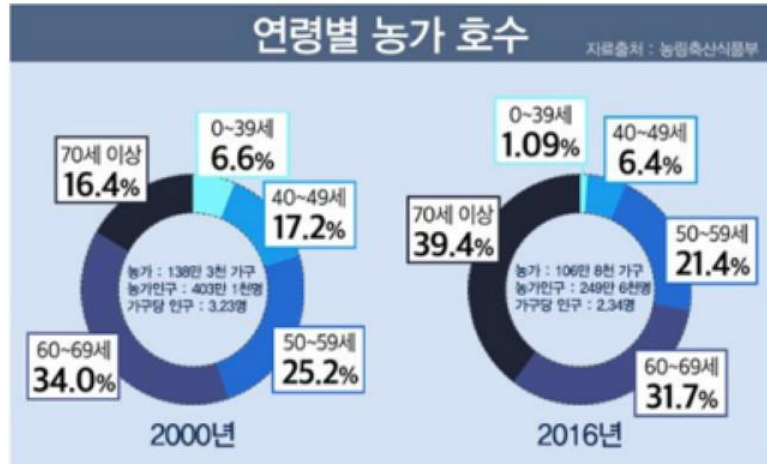
- 한국 베이부머세대와 그 부모세대 간 성공적인 분업(경제 고성장 시대)
- 베이비부머와 그 자식 세대 간 분업은 다양화 예상(경제 저성장 시대)
- 인구 이동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 귀농 귀촌이 한 흐름을 형성

농민의 세대교체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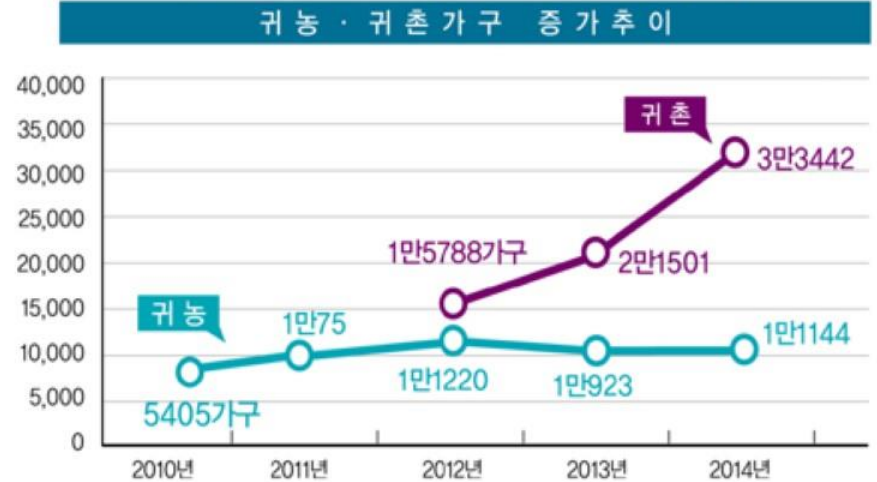
- 농업은 더 이상 저학력자 종사 직업이 아님
- 농촌 생활방식에 대한 매력의 재인식: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 사람과 더불어 자원이 농촌으로 유입 농업 6차산업화의 한 축 형성



[그림1: 연령별 농가 호수]



[그림2: 귀농·귀촌 가구 증가 추이]



귀농·귀촌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그림3: 귀농·귀촌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한국사회 미래전망③



환경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대응은 전세계 사람의 의무가 됨(2015년 파리협약)
- 먹거리 안전, 자연환경의 다기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
- ➡ 환경친화적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산업화를 위해 환경의 희생하는 것에 대한 반성

-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
 - 로컬푸드(local food)를 위한 공감대 확산
 - 간척지의 자연 복원 노력 '역간척' 추진
- ➡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

친환경 사회로 향하는 기반 형성 중

-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모색: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 한국 미래 산업구조에 대한 모색: 하드 인프라 → 소프트 인프라
- 자연 보존에서 자연 복원으로 공세적 전환



한국사회 미래전망④



단일직업 사회에서 다직업 사회로의 변화

- 파괴적 기술혁신의 일상화로 인해 직업의 소멸 주기 단축
-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
- ➡ 동시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사회의 등장 (평생 여러 직업 갖는 것과 다름)

인간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자각

- 우리가 걱정하는 일자리는 모든 노동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음(임금 노동)
- '돌봄'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인식
-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진 게 많다(공유경제의 핵심)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결합

- 삶을 중심에 놓고 일자리를 바라보는 태도의 대두
- '소유'보다 '공유'를 우선에 놓자 (제품=스톡, 소비=플로우, 제품 구매는 선택)
- 다양한 사업모델의 파생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직면할 도전



사회적경제의 분화

- 현재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현상이 뒤섞여 있음
- 사회적 경제 범주 안에 기업의 CSR, 협동조합, 자선활동, 신생 벤처기업 혼재
-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분화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사회적경제의 진화 방향

- 사회적경제의 지속성 기반 확보: 정부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어야
-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지위

- 단기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의 유력한 수단임
- 사회적경제가 발전할수록 시장경제,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해짐
-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한계 지위에 머물 것인지,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인지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



사회적 혁신을 일으키는 사회적경제

- 기존 시장메커니즘이 해결 가능한 분야의 사회적경제도 의미 있음
- 궁극적으로는 기존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기 곤란한 분야에서 발전해야
- 어느 쪽이든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을 일으켜야 의의가 있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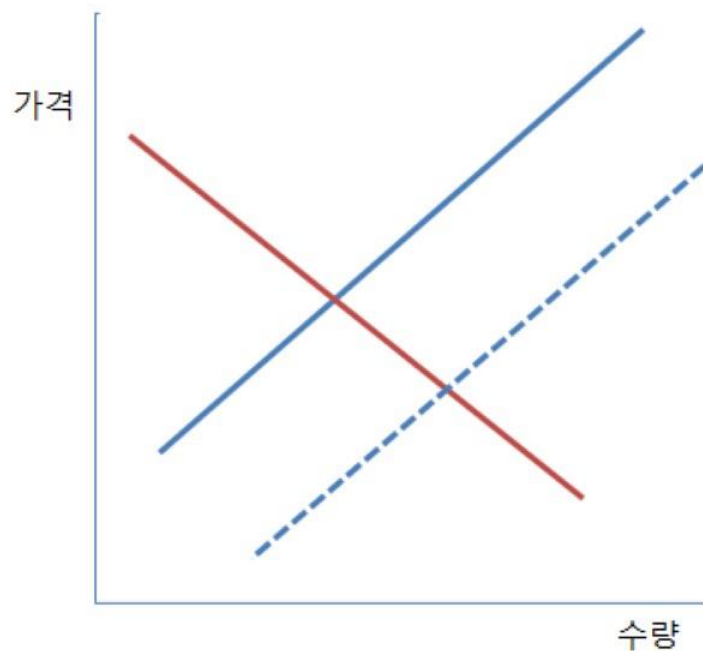
- 수요가 넘치는 시장의 사회적경제: Uber Taxi, AirBNB 모두 대도시 지향적
- 수요가 부족한 시장의 사회적경제: 농촌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남
- 사회적경제의 유익성이 가시화되어야 함

경제 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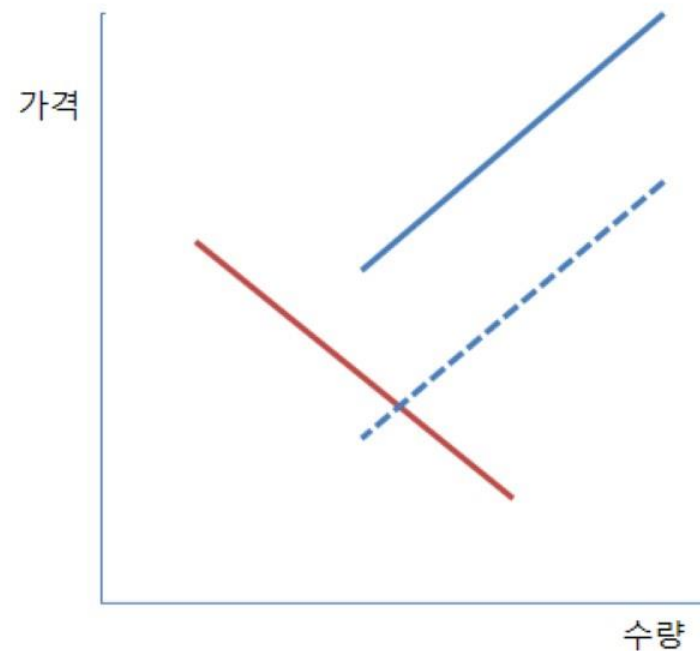
- 다양한 경제 방식이 공존해야만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이 유지됨
- 사회적 경제가 삶의 경제 방식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해야 함
- 시장경제의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 중요, 그러려면 일정의 세력을 형성해야 함



시장 대응형과 시장 창출형의 차이



시장 대응형 사회적 기업



시장 창출형 사회적 기업



감사합니다

